

한손에 분필 들고 뛰는 출판인들

풍부한 실무경험으로 이론 뒷받침 ... 산학협동의 통로 기대

강단에 서는 출판인들이 늘고 있다. 대부분의 출판인들이 주당 3시간에서 6시간 정도의 시간강사로 출강하고 있는데, 개중에는 출판사를 떠나 아예 대학으로 옮겨 간 출판인도 있다. 이들 출판인은 오랜 출판사 경력으로 출판실무 전반에 관한 경험과 지식을 두루 갖추고 있으며 대학원 석·박사 과정을 거쳐 출판학에 관한 이론적인 체계를 구축한 사람들. 출판사 경영만으로도 눈코뜰새 없이 바쁜 이들을 대학으로 이끌어낸 데는 우리나라 출판학계의 현실이 크게 작용한다.

가장 중요한 요인은 '교수기근' 현상. 80년대 이후 전문대를 중심으로 출판관련 학과의 신설이 잇따르고 대학 및 대학원 인접학과에 관련강좌가 많이 개설되는 등 출판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교수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났다. 신생학문이어서 연구층이 두텁지 않은 현실이고 보면 교수를 충원해야 하는 학계의 관심이 출판인에게 쏠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최근 들어서는 뒤늦게 대학원에 진학, 출판관련 분야를 연구하고 학위를 수여받은 출판인들이 속속 등장해, 출판인의 출강을 더욱 쉽게 했다. 대학원 과정을 거쳤다는 것은 대학강사로서의 기본 요건을 갖추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출판학이 철저하게 현장 중심의 학문이라는 특성도 빼놓을 수 없는 요인이다. 현장 실무경험이 풍부한 출판인보다 더 효과적이며 현실적인 강의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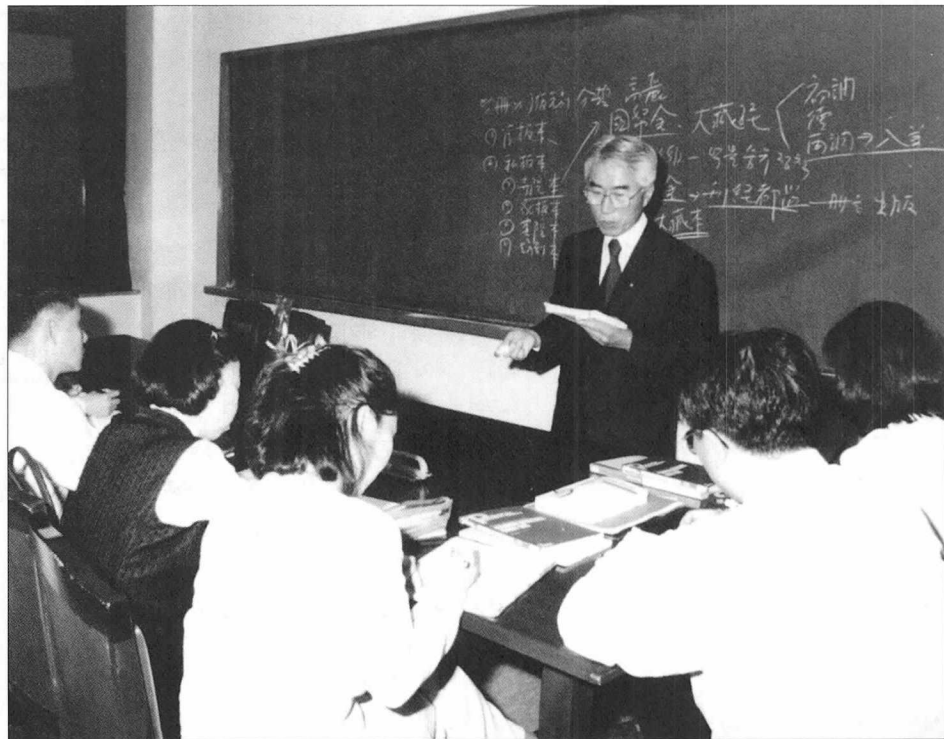
적합한 교재 없어 직접 집필도

비교적 최근까지 출강을 했거나 현재 강의를 진행중인 출판인은 줄잡아 10여명. 이들은 출판 경륜도 관심분야도 다 다르지만 '연구하는 자세'를 지녔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다.

원로 출판인인 김성재(일지사) 사장은 강단 경력도 원로급. 82년부터 중앙대 신문방송대학원 출판부 강의를 맡았는데 이철지(종로서적 대표) 김희락(현대출판연구원장)씨 등 '쟁쟁한' 제자들이 많다. '출판이란 무엇인가'부터 기획·편집·조판·원가관리·유통·광고 등 출판전반에 관한 내용을 강의했다. "강의 전날에는 술도 못먹을

강단에 서는 출판인들이 늘고 있다. 출판학이 철저하게 현장 중심의 학문이라는 특성도 출판인을 강단으로 이끌어낸 요인이다. 강의를 위해 교재를 집필하거나 지속적인 연구작업을 수행하는 등 출강을 계기로 출판인들의 의욕적인 연구와 저술활동이 이어지고 있다.

풍부한 실무경험으로 강단에 서는 출판인들이 늘고 있다. 사진은 중앙대 신문방송대학원에서 강의하고 있는 범우사 윤형두 사장.



정도로 긴장했다"고 고백하는 김사장이 가장 힘들었던 것은 교재 연구하는 일. 교재가 있을리 만무여서 일본, 미국 등 외국책도 많이 참고하고 경험도 되새겨 강의안을 준비하면서 스스로 공부할 때가 많았다.

강의안을 토대로 펴낸 《출판의 이론과 실제》(일지사, 1985)는 거듭 수정하고 개정해 지난해 5판을 펴냈는데 지금까지 11쇄를 찍을 만큼 스테디셀러로 자리를 굳힌 출판학 개론서다. 지난해는 연세대 언론홍보대학원에 처음으로 개설된 출판학 강좌에서 '저작권법'에 대해 중점적으로 강의했다.

명절이나 스승의 날이면 찾아오는 제자들로 집과 사무실이 북적덜 때 '가르치는 보람'을 진하게 느낀다는 윤형두(범우사) 사장은 "가르치는 일에 열중하다보니 출판사 일에 소홀하게 된다"고 걱정하면서도 자꾸 학문연구나 학생들을 가르치는 쪽으로 빠져들게 된다고 고백한다.

그런 이유에서인지 윤사장은 현장 출판인치고는 출강하는 학교도 시간도 많다. 82년에 강의를 시작한 중앙대 신문방송대학원에서는 현재 객원교수로 대우받고 있고, 연세대 언론홍보대학원과 경희대 신문방송대학원에도 출강중이다. 지난 학기에는 서강대 언론홍보대학원과 동국대 정보산업대학원의

출판잡지전공자들을 대상으로 강의하기도 했다. 그가 펴낸 《출판물유통론》《일본 출판물 유통》은 강의의 결과물. 현재는 《출판사전》을 준비중이다.

강의 과목도 초창기에는 출판기획론이나 유통론 등 일반론을 맡았는데, 현재는 '한국출판사(史)'를 맡고 있다. 고서(古書)에 대한 남다른 안목과 식견, 수집해놓은 현물이 많은 점 등이 이 강좌를 맡게 된 배경인데 학생들의 반응이 좋다.

이론과 실무 겸비한 '최고'의 교수

이들보다는 소장파에 속하는 조상호(나남), 김종수(한울) 사장도 현재 시간강사로 나간다. 조상호 사장은 94년부터 한양대학교 신방과에서 '출판학 원론'을 강의하고 있다. 교재의 빈곤으로 애를 먹었던 터라 얼마전 국내 관련학자 11명이 참여한 《현대출판의 이해》(나남)를 펴냈다. 이 책은 단행본 편집에 주로 쓰이는 여러 종류의 활자 및 종이를 실제로 사용하고 상세한 일러두기를 통해 책 제작의 실체를 보여주고 있어 '교과서다운 교과서'로 눈길을 끈다. 김종수(한울) 사장도 올해 3월부터 성공회대학 신방과 전공선택과목인 '출판잡지론'을 강의하고 있다.

고덕환(삼영사) 사장, 김병준(지경사) 사장, 고영수(청림출판) 사장은 얼마전까지 출강을 하다 현재는 중단하거나 쉬고 있는 상태.

대전전문대 출판과 전임교수를 맡기도 했던 고덕환 사장은 배재대학 국문과, 명지전문대 및 명지대 문예창작학과, 성균관대 신문방송학과 등 주로 학부과정에 전공선택으로 개설된 '도서편집론'의 강의를 맡았다. 활자선택의 문제, 교정 및 편집 등 단행본 편집 실무에 대한 내용을 핵심적으로 강의했다. 교재용으로 《도서편집론》을 펴내기도 했다. 한국출판의 역사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고사장은 강의와 무관하게 이 분야에 대한 자료수집과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

김병준 사장도 중앙대 신문방송대학원 석사 과정을 마친 후, 2~3년간 서일전문대학 인쇄출판과에서 '독자심리학' '출판제작론' 두 과목을 맡아 강의했다. 고영수 사장 역시 신구전문대학에서 겸임교수 대우로 '출판마케팅'과 '출판경영' 두 과목을 가르쳤는데 3년전에 그만둔 경우. 강의에 시간을 너무 많이 빼앗겨 사업에 소홀하게 되고 심리적인 부담도 크다는 것이 출강을 중단한 공통적인 이유다. 더러는 "학점에만 연연하는 학

집짓기의 즐거움

새 집을 지으실 계획이랑요?
저희와 상의해 주십시오.
아름다우면서도 견고한 건축물이 되도록
성의를 다하겠습니다.



사업내용

집필: 자서전· 회고록· 개인출판 및 문학· 위인전 등
운문: 번역물 및 아동물 등의 리라이팅
교정: 사전류· 참고서류· 한서 및 학술서적 등
편집: 백과사전· 잡지· 사보 등

기계설비

매킨토시 6대, 집필/교정용 컴퓨터 8대, 레이저 프린터 4대
스캐너 2대, 인화지/필름 출력기 1대
● 24시간 출력 서비스도 가능합니다 (아래아한글 3.0, 프로 96).



함께 일할 분을 찾고 있습니다. 저희 사업내용 중 특히 교정·교열 쪽의 일을
자신있게 해낼 수 있는 분은 연락 주십시오. 경력이 반드시 중요하
지는 않겠지만, 최소한 3년 이상 해당 분야의 일을 해보신 분이었
으면 합니다. 근무 시간은 9~6시이며 토요일은 격주 휴무입니다.



三現編輯室

대표자: 김문권
137-030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 26-15(우림빌딩 5층)
전 화: 549-6883~5 팩 스: 549-6877
천리안 ID: SAMYEUN

생들에게 '출판의 가치'를 심어주는 일이
무의미함을 느꼈다"고 '가르치는 일' 자체
에 회의를 나타내기도 한다.

한편, 바쁜 시간을 쪼개가며 출판사 일과
강의를 겸임하다가 아예 대학으로 자리를
옮겨 '가르치는 일'에만 열중하는 이들도
많다. 전영표(신구전문대), 민병덕, 김두식
(이상 혜전전문대), 이종국(대전전문대), 부
길만(동원공업전문대) 등이 대표적인 경우.

코리아헤럴드 편집부장을 필두로 삼중당,
동양출판사 편집부장을 역임했던 전영표
교수는 79년 신구전문대 개교와 함께 개설
된 인쇄과(이후 출판인쇄과로 개칭)로 자
리를 옮겨 현재까지 재직중이다. 커리큘럼
조차 마련되지 않았던 초창기에 교수직을
맡은 탓에 '출판학 개론'부터 '저작권' '광
고론' 등 커리큘럼을 개발하고 거의 모든
과목을 돌아가며 맡아야 했노라고 개척자
의 고충을 털어놓는다. 당연히 저서도 많은
데 《출판문화와 잡지 저널리즘》이 출간을
기다리고 있다.

김두식 교수는 편집·편집 실무서와 참
고도서를 주로 펴내고 있는 도서출판 '타
래'를 경영하면서 시간강사를 거쳐 올해 3
월 전임교수로 자리를 굳힌 경우. 현재 출판
사 일은 다른 사람에게 넘긴 상태인데 틈이
날 때마다 들러 조언도 해주고 '현장'의 흐
름을 익히기도 한다.

"출판이야말로 현장학이자 현장학"이라는
것이 그의 주장. 92년 3월 대전전문대를 필
두로 인쇄대, 서원대, 경인여전 등 주당 30
시간 이상 강의를 했던 경험을 털어놓는 김
교수는 저술 작업에도 열성인데 《편집디자
인 실무분석》《출판기획편집실무 강의》《전
지출판론》 등 10여권의 저서 및 편·역서를
출간했다.

출판계와 학계 의견 교류되길

출판인의 강단 진출이 늘어나고 있는 현상
에 대한 출판계 안팎의 평가는 대체로 긍정
적이다. 윤형두 사장은 "외국에서는 출판사
가 학자를 키워내는 온상이 되기도 한다"며
출판계 출신의 연구자 및 교수가 늘어나는
것은 우리 출판계의 수준과 질, 위상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뜻이라고 평가한다.

출강 경험이 있는 출판인들 스스로도 "강

의를 하면서 내가 가진 현장 경험을 정리할
수 있고 공부도 하고 배우는 바가 많다"고
밝힌다.

강의를 위해 교재를 집필하거나 관심분야
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작업을 수행하는 등
출강을 계기로 출판인들이 의욕적인 연구
및 저술 활동을 하는 것은 더없이 소중한
일로 평가된다. 연구풍토와 이론적 기반이
취약한 우리 출판계를 자극하고 살찌우는
기초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출판인들의 대학 출강이 현장과
학계의 문제의식 공유를 통해 출판계의 현
안 해결의 한 계기가 되리라는 기대도 있다.
특히, 학계로 자리를 옮긴 출판인들의 무게
중심은 학생들의 출판계 진출문제에 쏠린다.

김두식 교수는 "대학교육이 비현실적이라
고 지적하는 많은 출판인들이 출판계 후진
양성의 바람직한 방향을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며, 출판인
들의 출강이 출판계와 학계의 의견이 교류
되는 통로와 산학협동의 접점으로도 기능해
야 한다는 바람이다.

전영표 교수 역시 출판인들의 출강이 줄
업생들의 취업으로 연결되었으면 하는 절박
한 소망을 밝힌다. 또 "출판학 강의는 대학
원 학위만으로는 불가능하다. 반드시 현장
경험이 있어야 한다"며 졸업생의 취업뿐 아
니라 교수 양성을 위해서도 산학 협동이 필
수적이라고 강조한다. 산학협동의 방안으로
인턴사원제나 교환교수제 등을 제안하기도
한다.

결국, 여러 가지 긍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산학 협동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대학
강단에서 행해지는 출판인들의 강의는 공염
불에 그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
울 수 없다. — 박남정 기자